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2009년 8월,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집권정당으로 등장하였다. 1955년 창당 이래, 1993~94년의 일시기를 제외하고, 근 50여 년 동안 일본을 통치해온 거대 정당의 패배를 전후하여, 오히려 일본 내외의 학계에서는 자민당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일대학 교수인 사이토 준(齊藤淳)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소위 ‘이익유도정치’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가능했지만, 그 모순의 축적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가설을 세운 자신의 예일대학 박사논문을 일본어판으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齊藤淳, 2010).¹ 크라우스와 페케넨(Krauss and Pekkanen)은 자민당이 스웨덴, 이탈리아, 이스라엘의 집권 정당들보다도 장기간 집권하는데 성공했으며,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한 정당 모델의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던 요인을 후원회, 파벌, 정무조사회 등의 제도적 요인에서 구하며 이를 논증하는 연구서를 발표하였다(Krauss and Pekkanen, 2011). 1990년대 중반 자민당이 일시 권력을 상실하였을 때, 자민당 38년 통치에 대한 통사를 저술하였던 도쿄대학 법학부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교수도, 그 이후의 자민당 정치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후기와 함께 문고본으로

¹ 사이토 교수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기간 면에서는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의 그것과 필적하나, 자민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했던 정당이라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齊藤淳, 2010).

이 책을 재간행한 바 있다(北岡伸一, 2008).

사실 현대 일본정치를 연구하거나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민당의 존재를 빼놓고서는 거의 아무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냉전시대 초기에 결당된 이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자민당이 배출한 정치가, 그들이 주도한 법률과 정책, 자민당을 둘러싼 정치세력 및 이익집단들과 그 상호작용이 일본 정치의 틀을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총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일본 내외의 학계에서 자민당 정치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시기에,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일본정치에 관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일본과 한국의 주요 대학 교수를 역임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주요 연구들을 발표해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철휘 교수가 창당 이후부터 2009년 선거 패배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자민당 정치에 대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출간의 타이밍도 그러하거니와, 이 저서는 지금까지 써왔던 논문들을 단순 재수룩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분석틀로 50여 년에 이르는 자민당 정치의 구조와 특성을 통사적으로 밝혀내려 한 점에서 각별히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론에서 박철휘 교수는 종전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가 과거사의 연장선상에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경향을 지녀왔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일본정치 연구 동향을 소개한 이후, 일본정치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자민당 정치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된 제도결정론 등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이념, 정치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실증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은 이 책의 전편을 관통하는 분석틀로 일관되게 활용되고 있다.

제1장에서 그는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를 다루면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에 의한 소위 요시다 노선의 형성과 보수정당 합당에 의한 자유민주당의 결당, 그리고 이후 요시다 노선을 둘러싼 보수와 혁신 간의 갈등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에 이르는 자민당 정치가 분석되고 있다. 고도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혁신정당 성장 및 중도정당 등장과 그에 대한 자민당의 정책적 대응 등이 심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제3장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를 시기적 범위로 하면서, 다나카파에서 다케시 타파로 이어지는 자민당 주류 파벌의 흐름 속에서 나카소네 수상에 의한 신보수주의적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가 중점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90년대 일본의 정계 재편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 시기가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보통국가론 및 자주국가론이 등장하였고, 혁신정당들이 급속히 쇠퇴했으며, 보수 야당이 성장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체제 전환의 10년’이었다고 평가한다. 제5장은 2000년대 전반기에 걸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정치에 대해서는 그의 집권 이전에 확립된 정치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혹은 고이즈미 개인의 성향을 중시하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저자는 서론에서도 밝힌 방법론에 충실하게 이 시대의 제도적 구조와 고이즈미의 개인적 자질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고이즈미식 정치의 특질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아베(安倍), 후쿠다(福田), 아소(麻生) 수상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자민당 정치의 쇠락과정을 살피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역량이 축적되면서 2000년을 계기로 자민당 정치가 역풍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이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에서 박철희 교수는 54년에 이르는 자민당 우위체제 지속의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체제적 변용이 진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전후 초기 일본에 나타났던 정당 간 보혁 대립의 경쟁 체제가 보수 양당 중심의 경쟁 체제로 변화되었고, 자민당 내 파벌 간 유사 정권 교체 양상이 보수 양대 정당 간 정권 교체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념 및 정책 축의 차원에서도 통상국가론 대 평화국가론의 대립 구도가 현재는 보통국가 담론이 주류를 점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새롭게 집권당으로 등장한 민주당도 이 같은 체제 변용의 구도하에서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대하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박철희 교수는 지난 50여 년에 걸친 자민당 정치의 전개와 그 내외에서 작용한 변수들을 박진감 넘치는 필체로 적절히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에 나온 자민당 관련, 혹은 현대 일본정치 관련 국내외 연구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 및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자민당 정치와 관련된 제도, 중요 행위자로서의 인물, 그리고 이들이 추구한 정책과 이념을 상호연관성 속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기존의 자민당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제도의 전개에 강조점을 두는 제도결정론이나 주요 정치가의 개인적 경향과 정책 성향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1994년에 단행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자민당 정치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² 혹은 앞서 소개한 크라우스와 패캐년의 연구처럼 후원회나 파벌, 정조회 등의 생성과 전개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이 자민당 정치에 있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오카(北岡信一) 교수의 자민당 연구는 ‘구조적 정치사’, 즉 정치의 구조 속에서 개별 정치가들의 정책 성향을 밝혀내는 방법을 적용하려 하였지만, 실제 서술 면에서는 개별 정치가들의 지적인 자질이나 개인적 성향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제도나 개별 정치가들의 자질과 성향들이 정치학, 혹은 정당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수들임에는 분명하지만, 박철희 교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각 장의 서술에서 이러한 방법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결과 각 시대마다 자민당이 처해 있던 국내외적 상황과 그 속에서 정책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고 대처해간 정치가 개개인,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과 제도적 변화 등이 역동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지난 50여 년간 자민당을 이끌었던 유력 정치가, 그들이 추구한 이념과 정책, 그 결과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등이 포괄적으로 어우러진 통사적(通史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기타오카 교수 등이 서술했던 자민당의 통사적 서술과 달리, 박철희 교수는 각 장마다 해당되는 시대의 일본 정치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 경향을 소개하면서, 이를 검증하거나 반박하는 형태로 서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의 소위 ‘잃어버린 10년’ 시대의 정치를 서술하고 있는 제4장의 서두 부분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일본 사회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으로 이원화될 것이고, 이러한 양상이 정당 체제와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뎀펠과

² 이러한 연구서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amseyer and Rosenbluth(1993); Reed et al.(2009).

히와타리 교수 등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다(Pempel, 1999; Nobuhiro Hiwatar, 2002). 저자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면서 90년대의 자민당 정치를 서술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고이즈미 정치를 다루고 있는 제5장에서도, 고이즈미의 개인적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는 연구, 혹은 그 시대의 제도적 측면과 그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들을 각각 대별하면서,³ 저자 나름의 포괄적 방법론에 입각한 대안적 분석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통사적 성격을 지니지만, 각 시대의 자민당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표적 경향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과 대안적 방법론이 기저에 깔린, 시대비평적인 통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저자가 자민당 정치의 전개를 기축으로 현대 일본의 정치를 서술해 나가고 있지만, 사회당이나 민주당 등 여타 정당의 정치가나 정책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제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1960년대 사회당의 강령적 문서 “사회주의로의 길”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신에다 비전” 소개, 제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1980년대 사회당 사회주의이론센터의 활동과 1986년 사회당 신선언 채택 등에 대한 분석은 저자가 보혁 대립 시대의 사회당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창당 과정과 제6장에서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는 2000년대의 각종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은 저자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시 예리한 관찰과 분석을 수행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치밀한 분석의 결과 2009년 자민당의 총선거 패배에 대한 요인 분석도 기존 연구들에 비해 한층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자민당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마다 주요 상대 당이었던 사회당이나 민주당의 정책과 소속 정치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당연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민당을 중심축에 둔 저자의 연구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각 시대마다 일본의 사회적, 혹은 국제적 변화 추세 등에

³ 전자의 연구로는 大嶽秀夫(2006), 후자의 연구로는 Estevez-Abe(2006); 竹中治堅(2006)을 참조.

관한 적절한 자료를 삽입하여, 자민당만이 아닌 당대 일본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고 있는 점도 평가하고 싶다. 1963년 『중앙공론(中央公論)』에 게재된 이시다 히로히데(石田博英)의 칼럼을 제2장의 서두 부분에 배치하여,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의해 일본의 인구 구성과 사회 구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 변화의 추세가 1960년대 자민당을 둘러싼 정치 구도를 보혁 백중(伯仲)의 시대로 견인할 것이라는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 점, 제3장에서는 1975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 게재된 국영철도와 지자체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에세이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1980년대 이후 나카소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당대 일본의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논의들이 더해지면서, 이 책은 자민당 정치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사회의 속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연구서로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진 미덕으로서 놓칠 수 없는 점은 저자가 도처에서 각주 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일본 정치가들과의 인터뷰 자료이다. 잘 알려진 대로 저자는 컬럼비아대학 박사과정 시절 일본 정치의 현장에서 일본 의원들의 의정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서문에서도 소개되고 있듯이 많은 일본 정치가들과 깊은 교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자는 인터뷰 방식을 통해 자민당, 혹은 다른 야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 해당 정치인 본인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육성 자료들을 저서의 도처에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일본 이해가 역사적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 감정적 이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탈피한 현대 일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동세대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은 저자의 이러한 견해를 공유해 왔으며, 그간 현대 일본의 정치외교,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해 왔다(이원덕, 1996; 배정호, 2006; 김성철, 2006; 현대일본학회 편, 2007; 박영준, 2008; 송주명, 2009; 진창수, 2009; 이면우, 2011; 한상일·이숙중, 2011). 자민당 정치의 역사적 전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저서의 출간으로 인해, 한국 학계의 일본 연구 수준을 다시 한번 한국 사회와 국제 학계에 보이게 되었다고 동료 연구자로서 자부한다. 자민

당 정치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전후 일본의 궤적을 전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 저서가 한국 사회에서의 현대 일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책을 덮으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의문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일단, 저자가 서두에서 제시한 이 책의 방법론, 즉 자민당 주요 정치가 개인들의 인물됨과 그들의 이념 및 정책 비전, 그리고 그를 제약하거나 그에 인해 만들어진 제도과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틀이 여타 국가들의 정당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 같은 방법론은 다소 막연하여 일본 내의 여타 정당들, 혹은 다른 국가의 정당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론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개념 정의나 분석틀이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21세기 접어들어 한국 정치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매스미디어의 확산 및 첨단 정보화 추세로 인해 정치가와 유권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체제로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유권자들은 시시각각으로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평가와 투표장에서의 선거 행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일부 연구들에서는 2009년 일본 총선거를 이런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와 연동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Krauss and Pekkanen, 2011: 제10장), 이 같은 변화들이 향후 일본 정당 정치,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 국가들의 정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저자의 향후 연구 결과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철. 2006. 『일본외교와 동북아』. 서울: 한울.
- 박영준. 2008. 『제3의 일본』. 서울: 한울.
- 배정호. 2006.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출판.
- 송주명. 2009.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서울: 창비.
- 이면우. 2011.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서울: 한울.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 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진창수. 2009. 『일본의 정치경제: 연속과 단절』. 서울: 한울.
- 한상일 · 이숙중 편. 2011. 『일본과 동아시아』. 서울: EAI.
- 현대일본학회 편. 2007. 『일본정치론』. 서울: 논형.
- 大嶽秀夫. 2006. 『小泉純一郎ポピュリズム研究』. 東京: 東洋經濟.
- 北岡伸一. 2008. 『自民黨』. 東京: 中央公論新社.
- 齊藤淳. 2010. 『自民黨長期政權の政治経済学』. 東京: 勁草書房.
- 竹中治堅. 2006. 『首相支配: 日本政治の変貌』. 東京: 中公新書.
- Estevez-Abe, Margarita. 2006. "Japan's Shift toward a Westminster System." *Asian Survey* 46(4), July/August.
- Hiwatari, Nobuhiro. 2002. "Irresolute Parties?: The Fiscal Stimulus-Structural Reform Policy Dilemma and the Politics of Sectoral Coalitions in Japan." 『일본연구논총』 16권.
- Krauss, Ellis S. and Robert J. Pekkanen, 2011. *The Rise and Fall of Japan's LDP: Political Party Organizations as Historical Instituti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Pempel, T.J. 1999. *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Japanese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amseyer, Mark J. and Frances McCall Rosenbluth. 1993. *Japan's Political Market Pla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ed, Steven, Kenneth McElwain, and Kay Shimizu, ed. 2009. *Political Change in Japan*. Stanford: APARC.